

Ability-based Instruction considering Students' Proficiency

Bang-ho Kook
(Youngsaeng HighSchool)

ABSTRACT

Leveled Class was pursued in terms of providing students with lessons to their interest. It requires school to install appropriate classrooms and teachers to prepare for their differentiated lesson. Students move to classrooms which are arranged based on subjects, leaving their belongings in the lockers named home base. Class consist of leveled students, who are divided by beginners, intermediate, and advanced class, where students are reduced in number by the name of n+1. The point is how to teach them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level and one crucial problem is to teach the students of beginner's level, which asks teachers to restructure their textbooks to meet students. Another is how to evaluate them, which needs various ways of assessment. The solution is how often co-teachers get together and how far teachers and students feel rapport. By achieving this system, our society could be more differentiated and there would be few no kid left behind.

Key Words: leveled class, classrooms for only subject, differentiated class

I. 도입의 배경

수준별 수업은 1997년 7차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학생들의 개인별 능력이나 취향을 고려한 수업을 제공한다’는 원칙에서 시작되었다. 한 학급 40명 안팎의 많은 학생들을 중간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하다 보면 상위권이나 하위권 학생 모두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고 학습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학습이 요구되었다.

또한 수준별 수업은 지금까지 교육의 형태가 학생의 입장을 무시하고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다면 학생에게 다양한 수업과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학생 중심 수업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학생에게는 개인차

를 고려한 맞춤형수업으로 자존감과 진취적 인성을 길러 학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며, 교사에게는 학생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는 전문성 신장과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학부모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고자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9년에 전국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게 되었다. 교과교실제는 2014년까지 전국의 6학급 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90%의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교과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형’과 영어, 수학 교과에 한해서 실시하는 교과중점형이 있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은 시행 5년을 통해서 공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학급중심의 학교생활에서 교과중심의 활동으로 바뀜으로써 잦은 이동으로 인해 담임 중심의 상담지도가 어려워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들의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혁신학교 모형에서 보여주듯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인원수는 줄이되 수준별 수업은 지양하고 배움의 공동체수업을 통해 협동학습을 실시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거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 운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도입의 장단점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운영의 실제

1. 시설과 편성

이동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는 전 교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선진형’과 ‘영.수교과에 한해서 실시하는 과목중점형’이 있는데 선진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교무실, 학년을 중심으로 한 학급교실의 배치에서 교과중심으로, 즉 교과교실 옆에 교과사무실을 배치하고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사물을 보관한 후 이동한다. 층별로 나란히 배열되었던 학급과 달리 교과선생님의 학과교실 옆에 있는 교실에서 조회를 마치면 하루 종일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교과구분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 기술 교과 등으로 구성되는데 학과의 수업특성에 맞게 교실의 시설이 갖추어진다. 환경 구성의 요건을 보면 최신 멀티미디어 시설은 물론 교과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여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소집단 편성이 자유롭도록 테이블과 좌석을 배치하였으며 교과협의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과중점형 교과교실은 학력차가 심한 영어와 수학교과에 한해서 수준별로 실시하는데 시설 면에서는 두 개 교과만 교과교실을 만들어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기존의 사무실과 교실 배치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학급편성은 흔히 $n+1$ 이라고 칭하며 교과와 담당교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 반을 세 반으로, 세 반을 네 개 반으로 늘려 편성하고 수준을 상 중 하, 상 하, 상 중 등으로 구성한다.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는 상 중 하반이 적절하나 학력신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수준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운영이나 지도교사 간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 편성의 기준은 정기고사와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담임과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신입생의 경우에는 반 편성고사를 참고한다. 편성 시기는 학기 초나 정기고사가 끝난 뒤에 연간 2회 또는 4회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잦은 변화는 지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반의 규모는 일률적인 인원보다 상반과 하반은 적게, 중반은 다소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반적인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방과 후 수업에서 수준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 중 하로 수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2. 학습지도의 전략

수준별 수업은 학력차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성취목표를 정하여 교재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 집단은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중심의 수업, 중 집단은 활동중심의 협력학습,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의 흥미를 주어야 한다. 수준별 수업에서 차별화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이동수업의 의미가 상실된다.

특히 상반에서는 판단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통해서 고등정신을 심어주고 학생 스스로 준비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중급에서는 중급에서 상급으로 학업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목표로 하되 자칫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흥미를 더 잃을 수 있으므로 개별화된 수업이나 소집단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상급이 기본개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 중급은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확실한 지도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습부진아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보충반인 하 반은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먼저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기본 생활습관이 덜 되어 끈기가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이 중 상반에 비해서 적은 인원을 배정하는데 학습목표를 최대한 낮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대일로 지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장점을 살리고 칭찬하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단계적인 지

도를 해야 한다. 특히 하반의 경우에는 활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쓰거나 보거나 움직이는 활동이 흥미를 갖게 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Krashen의 말처럼 가설(hypothesis)+ 1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지도가 필요하다.

3. 평가와 학습자료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교사의 발전도 도모한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에서 평가는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가르치는 내용은 달라도 평가는 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평가를 위해서는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가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평가부분만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원칙을 학습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통문항과 수준별 문항으로 비중을 달리하여 세트 문항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수행평가의 활용이다.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정기고사의 평가는 난이도가 같기 때문에 수준을 달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수행평가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다. 수행평가는 수준에 관계없이 수업에 참여하는 충실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의 경우에도 학생의 수업태도나 과제이행, 노트정리, 발표 등을 반영할 수 있다.

학습자료는 수업을 좌우한다. 먼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내용의 구조화, 즉 재구성이다. 상반의 문제해결, 중반의 협동학습, 하반의 개별지도에 맞는 활동지를 제작해야 한다. 수준에 관계없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심화, 기본, 기초문제를 제작하여 지도하되 보충자료로 심화자료를 개발하거나 이해중심과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교과협의회나 학년교과교사 간에 공통적인 수행평가와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일상화해야 한다.

III. 결론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학습을 통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의 만족도를 높여 학생 모두가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편성의 시기와 방법, 교재의 재구성, 교사들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수준별 수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학생의 취향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수학습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준별수업의 도입에서 운영까지 정리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다는 사

실을 알았다. 특히 교육청의 수준별 수업을 지양하라는 지시에 따라 최근 수준별 편성은 하지 않고 학급을 늘려 학생수만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수준별 반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학력수준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전형에서부터 자기주도형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준별 편성을 입학에서부터 실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수업은 집단화에서 개별화로 나아가는 사회발전의 일면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사회학적 측면과 미국처럼 학습부진아 줄이기(NKLB)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수준별 이동수업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1.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내용 전문가 토론회. 평가원
- 충청남도교육청. 2011. 영어과 서술형평가 문항 자료집. 충남교육청
- Richard, J & Rogers, T. 2001.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NY, Cambridge univ. press.

BIODATA

Dr. Kook received an MA in English Literature fro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a Ph.D. in TESOL from Jeonju university, specializing in Teaching Methodology. He has taught for over 30 years at high school and Teaching Theory such as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Teaching by Principles, Language Assessment, etc. at university level. He is a master teacher of Youngsaeng high school in Jeonju. E-mail: gbhcho@hanmail.net